

사교육 경험 및 부모의 성취압력이 자녀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진영자* 김진선**

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의 사교육 경험과 부모성취압력이 자녀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과 그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총 729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55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빈도와 백분율, 상관관계분석, χ^2 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 단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의 사교육 경험 여부는 사교육 경험이 있다 에서 5학년, 6학년, 4학년 순으로 나타났고, 현재 받고 있다 에서 4학년, 6학년, 5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사교육 교과목 종류는 주요과목은 6학년, 5학년, 4학년 순으로 나타났고, 외국어는 5학년, 4학년, 6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에 따른 자녀학습태도는 4학년, 6학년, 5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자녀학습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부모성취압력이 자녀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학습태도의 하위영역인 학교공부 태도와 교우관계 태도, 교사관계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이 학습태도가 긍정적으로 높다는 것이 발견되어, 과열된 사교육 경험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부모성취압력이 자녀학습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여, 부모성취압력이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사교육경험, 부모의 성취압력, 학습태도

논문제출일 : 2010. 10. 29.

최종심사일 : 2010. 11. 20.

* 풀잎어린이집 교사, 주저자

** Corresponding Author : Kim Jin Seon, Cheju Halla College, 38 Halladaehak-ro,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690-708, Korea, E-mail : ksjss21@hanmail.net

I. 서론

우리나라의 사교육 문제는 현재 교육계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로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유아 및 아동의 사교육 시장의 성장 규모는 실로 엄청나다. 이러한 사교육 시장의 증가 추세는 유아 및 아동들이 받고 있는 사교육의 종류와 수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사교육은 학교 내에서 학업성취가 낮거나 학교의 정규 교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과목에 대한 부족한 지식을 보충하거나 확장시킴으로써 학교 교육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보조적 학습행위를 의미한다(사회정화위원회, 1986). 그러나 현재의 사교육은 예능 기능훈련이나 선행 학습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인격 연마를 추구하는 교육 본연의 목표보다는 대학 입시를 위한 것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이는 곧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취학 전 유아에 대한 교육이 팽창하여 과잉 조기교육열로 표출되기 시작하였고, 사교육의 열풍은 점점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로 학부모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학습을 요구하고(안지영, 2003; 우남희·현은자·이종희, 1993),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대상이 어린 유아에게까지 하향화되고 있다(박순희, 2006; 홍은자, 2001; 박찬옥, 2003). 또한 과도한 사교육은 학급 내에서 아동들 간의 수준차이를 크게 만들고, 지나친 선행학습으로 인해 수업에 대한 흥미 및 관심을 떨어뜨리게 하고 있다. 어머니들은 자녀를 자신의 대리자아로 인식하여 자녀에게 지나친 관심과 기대로 인해 어린 연령의 아동들은 일찍부터 사교육을 경험하고 있다(손정희, 1995). 이와 같이 사교육에 의존하며 자녀의 학업을 중시하는 부모의 신념은 사교육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박순희, 2006), 사교육 경험에 있어 자녀에 대한 학업과 성취기대로 여기에는 양육방법의 한 개념인 부모의 성취압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홍은자, 2001; 김보림, 2007). 사교육 경험을 아동발달과 관련시켜 살펴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지연(2001)은 조기사교육을 받은 아동이 받지 않은 아동들보다 학습에 자신감과 흥미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고, 박찬옥(2002)은 조기 사교육을 받은 아동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고 하였으며, 권미나와 권정윤(2007)은 사교육 경험을 통해 심화학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곽희선(1993)은 학원을 많이 다닌 아동이 교우·교사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고 하였고, 권미나와 권정윤(2007)은 선행학습을 했으므로 수업을 지루하게 여긴다고 하였으며, 윤은경(2005)은 사교육 경험이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고 하였고, 최명숙(2006)은 사교육은 유아의 지식습득 및 자기효능감과 자기학습조절능력 향상에 큰 효과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임자성과 채규만(2005)은 학업불안이나 우울감과 더불어 정서적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고 하였다. 이렇게 선행학습으로 인한 사교육 경험은 대인관계에 자신감을 부여하고, 보다 쉽게 진학정보를 제공하는 등 아동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반면, 적절하지 못한 사교육 경험은 아동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고 정서불안, 충동적 행동, 창의성 발달 저하, 자율성 부족, 이기적 성향 등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조화로운 전인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양립하고 있는데, 적절하지 못한 사교육 경험은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다(권정윤, 2007; 백혜정·김현신·우남희, 2005; 통계청, 2008).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고, 대인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며 여러 습관과 훈련을 통해 사회화의 기초가 이루어지고 성격의 근본이 형성된다. 부모의 양육태도의 한 개념인 성취압력은 자녀의 학업과 사회에서의 성취에 대한 관심과 기대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성취압력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본 연구에서의 부모의 성취압력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갖는 교육적인 관심, 성취기대 및 역할기대를 의미하며 자녀의 학업성적, 석차, 가정학습상태, 과제수행, 시험 준비 등에 대한 기대심리 등이 포함된다고 하겠다.

사교육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여러 변인 중 성취압력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권정윤, 2007). 그래서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은 경우, 자녀가 받는 사교육의 수가 더 많고(박지연, 2004),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높은 경우에 학원이나 학습지 이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홍은자, 2001). 그리고 부모의 성취압력과 양육스트레스를 사교육과 연관 지어 본 연구(안지영, 2003)에서는 성취압력이 사교육의 필요성과 정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홍은자(2001)는 학원을 많이 다니는 유아가 학원을 적게 다니고 학습지를 적게 하는 유아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보고하였고, 김정원과 이정아(2002)도 사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참여하지 않는 유아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리고 박영선(2005)은 사교육 경험이 적은 그룹의 유아들이 사교육 경험이 많은 그룹의 유아들보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참여수준이 고차원 단계에 있는 활동에 많이 참여함을 제시하면서 사교육이 유아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사교육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윤여명, 2003). 이렇게 볼 때 여러 변인 중 학력위주의 경쟁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녀의 성공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관심으로 표현되는 부모의 성취압력은 사교육 경

험의 양상과 높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습태도를 보면 정숙자(1994)는 부모의 성취압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한 아동집단의 학습태도가 부정적으로 성취압력을 지각한 아동집단의 학습태도보다 더 적극적인 학습태도를 갖추고 있다고 하였고 송명용(2002)은 아동들이 지각하는 부모성취압력의 차이에 따른 일반적 학습태도의 차이에 있어서는 긍정적 성취압력을 지각한 집단의 학습태도가 부정적 성취압력을 지각한 집단의 학습태도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이렇게 볼 때 부모의 성취압력은 아동의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부모의 성취압력 차이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형태로라도 자녀학습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예측된다. 이렇게 볼 때,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인 부모 성취압력은 사교육경험과 자녀학습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유아기 때부터 조기교육이나 사교육 경험 등의 환경들은 향후 학습태도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사교육 경험과 부모성취압력이 자녀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근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연구 보고된 것이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사교육 경험이 성장기 아동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자녀학습태도에 관한 연구로 부모의 성취압력이나 사교육 경험에 대한 연구자들의 지속적 관심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 경험 실태를 조사하여 사교육 경험과 부모의 성취압력이 자녀학습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아동의 사교육이 긍정적인 측면으로의 향후 발전 방향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4, 5, 6학년 사교육 경험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학년에 따라 자녀학습태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사교육 경험(사교육 경험 여부, 사교육 경험 기간)에 따라 자녀학습 태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부모의 성취압력이 자녀학습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초등학교 6곳을 임의로 선정해 4, 5, 6학년 아동과 그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조기 교육이나 사교육 경험이 가장 풍부하고 실태가 다양하여 사교육 경험으로 인한 학습태도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제주시 초등학생 401명(71.9%), 서귀포시 초등학생 157명(28.1%)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4학년 180명(32.3%), 5학년 208명(37.3%), 6학년 170명(30.5%)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은 여자 285명(51.1%), 남자 273명(48.9%)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출생순위는 첫째 246명(44.2%), 둘째 207명(37.2%), 셋째 86명(15.4%), 넷째 18명(3.2%) 순으로 나타났다. 모의 학력은 고졸 243명(43.8%), 전문대졸 139명(24.9%), 대졸 132명(23.8%), 대학원졸 23명(4.1%), 중졸이하 18명(3.2%) 순으로 나타났고, 부의 학력은 대졸 201명(36.2%), 고졸 168명(30.3%), 전문대졸 134명(24.1%), 대학원졸 36명(6.5%), 중졸이하 16명(2.9%)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3가지로서 사교육 경험 실태 질문지, 부모성취압력 측정도구, 학습태도 검사에 관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먼저 초등학생의 사교육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선택한 검사 도구는 김보용(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 내용 중에서 사교육 경험에 관한 내용만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구성은 연구 대상자의 일반사항과 사교육 경험여부를 학부모가 표시하도록 하였고, ‘사교육 경험 및 경험 유형’, ‘사교육 교과목 수’ 등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의 성취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수미(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이며, ‘내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등의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로 ‘정말 그렇지 않다(5점)’에서 ‘정말 그렇다(1점)’까지 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척도에 대한 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압력

이 높은 것으로 본다. 한수미(2008)의 연구에서 보고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학습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1985)에서 개발한 초등학생용으로 심희경(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학습태도를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 요인으로 학교공부태도(10문항), 교우관계태도(5문항), 교사관계태도(10문항)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다' 등의 내용에 대해 '항상 그렇다(1)'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5)'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척도에 대한 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학습태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심희경(2002)의 연구에서 보고된 척도의 각 하위영역별 순 Cronbach's α 계수는 학교공부태도 .76, 교우관계태도 .68, 교사관계태도 .8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86, 학교공부태도 .84, 교우관계태도 .75, 교사관계태도 .86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먼저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사교육 경험 및 부모성취압력과 자녀학습태도의 기초통계량을 산출하였다. 또한 사교육 경험 및 부모성취압력과 자녀학습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문제 1)을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와 3)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고,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4)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초등학교 4, 5, 6학년 사교육 경험 실태

초등학교 4, 5, 6학년에 따른 사교육 경험 실태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고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사교육 경험 실태 χ^2 검증 결과

내용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	χ^2
		N(%)	N(%)	N(%)	N(%)	
사교육 경험	있다	76(42.2)	120(57.7)	80(47.2)	276(49.5)	11.93* (df=4)
	없다	6(3.3)	10(4.8)	9(5.3)	25(4.5)	
	현재 받고있다	98(54.5)	78(37.5)	81(47.6)	257(46.1)	
전 체		180(32.3)	208(37.2)	170(30.5)	558(100.0)	
교과목수	1가지	29(16.6)	21(10.6)	20(12.4)	70(13.1)	12.37 (df=8)
	2가지	60(34.3)	83(41.7)	46(28.4)	189(35.3)	
	3가지	38(21.7)	36(18.1)	40(24.7)	114(21.3)	
	4가지	27(15.4)	26(13.0)	25(15.4)	78(14.6)	
	5가지이상	21(12.0)	33(16.6)	31(19.1)	85(15.9)	
전 체		175	199	162	536(100.0)	
사교육 기간	1년 미만	18(10.2)	18(9.1)	22(13.8)	58(10.8)	12.65 (df=8)
	1-2년 미만	31(17.6)	28(14.0)	20(12.5)	79(14.8)	
	2-3년 미만	39(22.2)	33(16.6)	24(15.0)	96(17.9)	
	3-4년 미만	36(20.5)	34(17.1)	26(16.2)	96(17.9)	
	5년 이상	52(29.5)	86(43.2)	68(42.5)	206(38.5)	
전 체		176	199	160	535(100.0)	
사교육 유형	학 원	135(75.0)	159(76.4)	126(79.0)	420(75.3)	7.41 (df=8)
	과 외	11(6.1)	18(8.7)	19(11.2)	48(8.6)	
	교습소	8(4.4)	8(3.8)	4(2.4)	20(3.6)	
	공부방	32(17.8)	33(15.9)	27(15.9)	92(16.5)	
	학습지	42(23.3)	42(20.2)	32(18.8)	116(20.8)	
	기 타	3(1.7)	4(1.9)	3(1.8)	10(1.8)	
전 체		중복체크로 100% 상회함				

교과목 종류	주요 과목	137(76.1)	165(79.3)	140(82.4)	442(79.2)	15.56* (df=8)
	예체능과목	67(32.2)	65(31.3)	49(28.8)	181(32.4)	
	기능 과목	25(13.9)	32(15.4)	18(10.6)	75(13.4)	
	외 국 어	106(58.9)	142(68.3)	96(56.5)	344(61.6)	
	기 타	24(13.3)	16(7.7)	8(4.7)	48(8.6)	
	전체	중복체크로 100% 상회함				

표의 수치는 빈도(백분율)를 나타냄.

* $p < .05$

<표 1>을 보면 초등학교 4, 5, 6학년의 사교육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11.93(df=4)$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5$). 그러나 분할계수는 .145로 두 변수의 관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사교육 교과목 종류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15.56(df=8)$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5$). <표 1>의 결과와 같이 사교육 유형중 학원이 우선순위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아동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교과목 종류에서 주요과목과 외국어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학년에 따른 자녀학습태도

사교육 경험에 따라 자녀학습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학년에 따른 자녀학습태도 ANOVA 결과

(N=545)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	F
		M(SD)	M(SD)	M(SD)	M(SD)	
자녀 학습 태도	학교공부태도	3.53(.68) _a	3.27(.72) _b	3.38(.59) _b	3.39(.68)	7.11***
	교우관계태도	3.33(.66)	3.23(.77)	3.22(.76)	3.26(.73)	1.30
	교사관계태도	3.73(.76)	3.53(.76) _b	3.50(.72) _b	3.59(.75)	4.97**
	전 체	3.57(.56) _a	3.36(.60) _b	3.40(.50) _b	3.44(.56)	7.42***

아래첨자가 나타나는 평균은 Duncan 사후검증

** $p < .01$, *** $p < .001$

<표 2>를 보면 자녀학습태도는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7.42, p<.001$), 자녀학습태도의 하위영역 중 학교공부태도($F=7.11, p<.001$)와 교사관계태도($F=4.97, p<.01$)가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집단 간의 차이결과, 자녀학습태도(학교공부태도, 교사관계태도)에서 4학년은 나머지 학년 집단인 5학년과 6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자녀학습태도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사교육 경험에 따른 자녀학습태도

사교육 경험(사교육 경험 여부, 사교육 경험 기간)에 따라 자녀학습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사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자녀학습태도 ANOVA 결과 (N=545)

구 분		있다	없다	현재 받고 있다	합계	F
		M(SD)	M(SD)	M(SD)	M(SD)	
자녀 학습 태도	학교공부태도	3.32(.69) _a	3.58(.60)	3.45(.67) _{ab}	3.39(.68)	3.45*
	교우관계태도	3.19(.75)	3.25(.67)	3.33(.72)	3.26(.74)	2.66
	교사관계태도	3.53(.79)	3.66(.56)	3.63(.73)	3.59(.75)	1.25
	전 체	3.38(.59) _a	3.55(.44) _b	3.49(.54) _{ab}	3.44(.56)	3.39*

아래첨자가 나타나는 평균은 Duncan 사후검증

* $p<.05$

<표 3>을 보면 사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자녀학습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3.39, p<.05$), 자녀학습태도 하위영역 중 학교공부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F=3.45, p<.05$) 자녀학습태도는 사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교육 경험 여부 간 차이를 보면 자녀학습태도(학교공부태도)는 사교육 경험이 있다와 사교육 경험이 없다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학습태도는 사교육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교육 경험 기간에 따라 자녀학습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부모의 성취압력에 따른 자녀학습태도의 영향

부모성취압력이 자녀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4> 부모성취압력과 자녀학습태도 회귀분석

변 인		부모성취압력				
		B	β	t	R ²	F
자녀 학습 태도	학교 공부 태도	-.17	-.16	-3.64***	.02	13.25***
	교우 관계 태도	-.11	-.09	-2.07*	.01	4.28*
	교사 관계 태도	-.20	-.16	-3.80***	.03	14.45***
	전 체	-.17	-.18	-4.67***	.034	8.51***

아래첨자가 나타나는 평균은 Duncan 사후검증
* $p < .05$, *** $p < .001$

<표 4> 를 보면 부모성취압력은 자녀학습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고($t = -4.67, p < .001$), 자녀학습태도의 하위영역인 학교공부 태도($t = -3.64, p < .001$)와 교우관계 태도($t = -2.07, p < .05$), 교사관계 태도($t = -3.80,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모성취압력이 자녀학습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모성취압력이 자녀학습태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3.4%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사교육 경험 기간과 자녀학습태도 회귀분석

변 인	자녀 학습 태도				
	B	β	t	R ²	F
사교육 경험 기간	.09	.10	2.41*	.011	5.83*

* $p < .05$

<표 5>를 보면 사교육 경험 기간은 자녀학습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설명하는 정도는 1.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이 사교육 경험 여부를 조사하여 사교육 경험과 부모성취압력이 자녀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의 사교육 경험 결과는 사교육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교육 경험이 있다 에서는 5학년이 가장 높고 4학년이 가장 낮으며, 현재 받고 있다 에서는 4학년이 가장 높고 5학년이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두 변수의 관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어머니가 인성을 강조하는 양육 신념을 가질수록 아동의 사교육 경험은 적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와 반대되는 내용이지만(이소현, 2008), 김보림(2007)과 박수진(2001)의 사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아동의 비율은 상당히 높다는 연구 결과와는 유사하다. 또한 부모성취압력이 사교육의 필요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고(안지영, 2003),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높으면 학원, 학습지를 시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결과(홍은자, 2001)와 부모의 욕심이나 교육열이 사교육 과열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우남희·현은자·이종희, 1993)과 같은 맥락이고 사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변인 중에서 성취압력이 사교육 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권정윤, 2007)는 연구 결과들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는 어머니의 실제적인 양육신념과 사교육 간의 영향력은 더욱 강력할 수 있고(이소현, 2008), 현대의 과열된 사교육 열풍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학년에 따라 교과목수와 사교육 기간과 사교육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교과목수가 많은 아동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선행연구에서 볼 때, 어머니가 사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녀가 받게 되는 사교육의 가지 수가 많아진다는 연구 결과(이기숙 외, 2002)와 어머니가 학습을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가질수록 조기·특기교육을 시키는 가지 수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김보림, 2007)와 유사한 맥락이다. 또한 박지연(2004)의 학업성취 지향적인 교육관을 가진 어머니가 자녀에게 더 많은 수의 조기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안지영(2003) 연구의 어머니의 성취압력과 조기교육의 필요성은 이용가지수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성취압력이 사교육 양상과 큰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권재기(2001) 연구의 어머니의 기대수준이 낮은 집단의 아동들은 학업과의 학습을

받지 않거나 평균 한 과목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와 반대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년에 따라 사교육 경험이 5년 이상이 제일 높았고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것으로 보아, 사교육이 하향화 되고 있음(홍은자, 2001; 박찬옥, 2002)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는 자신들의 신념이나 가치기준에 따라 자녀의 교육활동에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이소현, 2008)는 연구가 뒷받침해 주고, 최영란(2001) 연구의 조기교육은 아동의 흥미와 발달에 적합한 교육보다는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교육과 아동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는 교육을 부모의 교육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며 이는 자녀를 자신들의 대리자아로 인식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학년에 따른 교과목 종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교과목 종류는 주요과목에서는 6학년이 가장 높고 4학년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외국어에서는 5학년이 가장 높고 6학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과목 종류 중 주요과목이 제일 많은 것과 영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아, 선행연구에서 김효선(2001) 연구의 부모들이 학업에 부담감과 학교성적에 관심이 많은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뒷받침해 주며, 초등학생의 경우도 최근에는 주요과목과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교육이 주로 실시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임자성, 채규만, 2005)가 뒷받침해주고 있고, 이는 글로벌시대의 세계화에 대응한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학년에 따른 자녀 학습 태도에 대한 차이의 결과는, 학년별 자녀학습태도는 4학년은 5학년과 6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학습태도의 하위영역 중 학교공부태도와 교사관계태도에서 4학년은 5학년과 6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자녀학습태도는 4학년이 5, 6학년 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녀학습태도는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송명용(2002)의 연구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 인 부모 성취압력은 사교육경험과 자녀학습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유아기 때부터 조기교육이나 사교육 경험 등의 환경들은 향후 학습태도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여겨진다는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부모가 매스컴이나 부모교육 등을 통해 자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동 발달의 눈높이에 맞는 학업성취로의 대로가 아닌가 유추된다.

셋째, 사교육 경험에 따른 자녀학습태도의 차이의 연구결과는 사교육 경험여부와 자녀학습태도의 하위영역 중 학교공부태도에서 '사교육 경험이 있다'와 '사교육 경험이 없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자녀학습태도 전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자녀학습태도는 사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

에서 학원을 많이 다닌 아동이 교우, 교사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곽희선, 1997), 사교육 경험을 통해 선행학습을 했으므로 지루하게 여긴다의 연구 결과(권미나, 권정윤, 2007)와 유사하다. 그러나 조기사교육을 받은 아동들이 받지 않은 아동들보다 학습에 자신감과 흥미가 높게 나타난 결과(김지연, 2001)와 사교육을 받은 아동이 받지 않은 아동보다 학습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좋은 결과(박찬옥, 2002)를 보였다는 연구결과는 일치 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일치는 아동들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따른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추후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넷째, 부모성취압력에 따른 자녀학습태도의 영향을 연구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 부모성취압력이 자녀학습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부모성취압력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자녀학습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성취압력이 자녀학습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매우 낮은 상관성을 보여, 이는 선행연구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송명용(2002)의 연구에서 아동들이 지각하는 부모성취압력의 차이에 따른 일반적 학습태도의 차이에 있어서는 긍정적 성취압력을 지각한 집단의 학습태도가 부정적 성취압력을 지각한 집단의 학습태도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과 연관하여 볼 때 일맥상통함을 보였고,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내용이 실제로 자녀가 수행하는 내용과 부합되지 않아 상호간에 긴장과 욕구불만이 쌓이게 되면 자녀의 과업수행에 차질이 오게 되며, 자녀가 부모로부터 무리한 요구를 받게 되면 역할 갈등에 빠지게 된다는 내용이 뒷받침해주며(심희경, 2002), 아동이 부모성취압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이 많아졌고, 부모의식이 과거에 비해 자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무조건적인 것보다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아동의 정서에 입각한 사교육을 고려해 본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자녀의 발달목표로서 인성을 중시하고, 학업이나 사회에서 인정받는 성공보다는 자녀의 흥미와 다양한 경험을 존중하며 드러난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안지영, 2000), 아동에게 관심을 갖고 아동의 개인차를 인정하며 대화를 나누고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녀학습태도에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민주적, 애정적, 자율적인 부모의 성취압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아동의 사교육 경험과 부모성취압력이 자녀학습태도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아동의 학업에 대한 학습태도의 관점과 부모의 학업성취에 대한 성취압력의 관점에 대해 그들이 어떤 학습관과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지와 가정과 교육기관에서 어떠한 환경 등을 제공해 주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사교육 경험이 자녀학습에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부모성취압력이 자녀학습에 미치는 영향

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조기교육을 받은 아동과 받지 않은 아동, 계속적으로 사교육을 받은 아동과 받지 않은 아동을 심층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출생순위와 성별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의 차이를 보이는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방과 후 활동이나 학력향상을 위한 제도도 구축되고 있지만 아직 많은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새로 개편된 초등학교의 7차 교육과정도 아동이 초등학교를 입학하면 한글에 관한 이해 없이 바로 문장이나 받아쓰기 등으로 들어가게 되어 이것 또한 부모들로 하여금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조금하게 글쓰기와 속셈을 많이 시키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에 관한 전문가적인 견지에서 심도 높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과열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의 위상을 세우는 등 학부모의 의식 개혁과 교사의 전문성을 키우고 학교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과열된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도 사회에 팽배해 있는 학력 및 학벌위주의 의식구조가 개선되어야 하겠고, 과다한 사교육 문제와 사교육비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 효과를 제고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적인 교육보다 질적인 교육을 지향해야하고, 조기교육이나 사교육이 선행학습이 아닌 아동들의 잠재된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는 교육으로 발전되어 창의적이고 독특한 능력을 키워주는데 주력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 경험과 부모성취압력이 자녀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인 면이 아닌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었고, 특히 과거에 비해 보다 나은 부모성취압력의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그리고 부모성취압력이 자녀학습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여, 부모성취압력이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사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이 학습태도가 긍정적으로 높다는 것을 발견되어, 과열된 사교육 경험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 초등학교 여섯 곳, 4, 5, 6학년 아동과 그의 학부모로 각각 표본 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과 ‘사교육 경험이 있다’와 ‘없다’의 데이터에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점에 제한점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이 제주특별자치도 초등학교 여섯 곳인 4, 5, 6학년 재학 중인 아동과 그의 학부모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물론 우리나라 모집단 전체를 대표하여 일반화하

는데 제한점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른 지역의 여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제한 상황에서의 자녀학습태도로만 살펴보았을 뿐 시각적 변화에 따른 부모성취압력과 자녀학습태도의 차이는 살펴보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므로 자녀학습태도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추후 연구에서는 시간적 추이에 따른 변화를 연구할 필요가 있고, 설문지법을 사용한 조사연구로 제한되어 있어서 사교육 경험, 부모의 성취압력, 학습태도에 관한 질문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배재하기 위해 질문지와 면접 또는 관찰을 병행하여 다양한 측정방법이 시도 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곽희선(1993). **초등학교 아동의 학원수강과 학업성취 및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권미나(2007). **영어 사교육이 초등학교생의 학업 성취도와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재기 (200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기대와 과의학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정윤(2007). 어머니의 부모 역할지능과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 조기특기교육에 대한 인식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1), 87-99.
- 김보림(2007). **유아 조기·특기 교육의 실태와 어머니 양육신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용(2008). **초등학생의 사교육 경험이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원, 이정아(2002). 유아의 방과후 활동 경험과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3(6), 121-137.
- 김지연(2001). **조기영어교육이 초등학교 영어학습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효선(2001). **유치원 방과후 유아의 활동 실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진(2001).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조기·특기교육에 관한 실태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희(2006). **유아의 사교육 실태 및 부모와 교사의 인식**.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선(2005). **조기교육 경험에 따른 유아의 참여수준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연(2004). **어머니 특성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조기교육 정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찬욱(2002). **유아기 조기교육의 경험과 초등학교생의 학습태도, 학업자아개념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혜정·김현신·우남희(2005). **조기 사교육 경험이 있는 유아들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3(1), 23-43.
- 사회정화위원회(1986). **과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사회정화위원회.
- 손정희(1995).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유형과 그 정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명용(2002). **중학생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성취도 및 학습태도와의 관계**.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희경(2002). **부모의 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습태도가 학업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영(2000).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3). 유아기 자녀의 조기교육 실태와 어머니의 양육신념, 양육스트레스 및 성취압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1(11), 95-111.
- 우남희·현은자·이종희(1993). 사설학원과 가정 중심의 조기교육 실태 연구. **유아교육연구**, 13(1), 49-64.
- 윤여명(2003). 초등학생들의 과외학습이 정신건강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은경(2005). 초등영어 사교육이 학습자들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숙·장영희·정미라, 홍용희 (2002). 유치원에서의 특별활동 실시 현황 및 교사의 인식. **아동학회지**, 24(4), 137-152.
- 이소현(2008).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 스트레스 및 주관적 안녕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자성·채규만(2005). 초등학생의 과외학습 스트레스와 관련한 심리적 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3), 295-311.
- 정숙자(1994). 아동이 지각한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성취 및 학습태도와의 관계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명숙(2006). 사교육의 유형과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자기조절학습력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란(2001). 유치원아의 방과후 과외교육 실태조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8). **사교육비 조사 보고서**. 서울: 통계청.
- 한국교육개발원(2008). **국제지표로본 한국교육**. 한국교육개발원.
- 한수미(2008). 유아의 방과후 사교육 경험 및 어머니의 성취압력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은자(2001). 어머니성취압력과 학원·학습지 이용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The effects of private education experiences and parent's achievement pressure affect the learning attitude of children

Jin Yeong-Ja* Kim Jin-S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rivate education experienc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parents' achievement pressure affect the learning attitude of childr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th, 5th 6th form students and their parents of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Island of Korea. Total 729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m and then total 558 copies except for unfaithful and false respondents were used as final analytical data. For data analysis, a frequency, percentage, correlation analysis, χ^2 Test, One-Way ANOVA and sing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First, the most experienced students for previous experiences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were in the order of 5th, 6th and 4th form students, and the students who are the most frequently educated in an extracurricular education at present were in the order of 4th, 6th and 5th form students. For kinds of subject for each form, the extracurricular education for key subjects was high in the order of 6th, 5th and 4th form, and the one for a foreign language was in the order of 5th, 4th and 6th form. Second, the students showing the best learning attitude for such extracurricular education were in the order of 4th, 6th and 5th form. Third, the learning attitud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accordance with experience or non-experience of an extracurricular education. Fourth, the effect that parents' achievement pressure affects the learning attitude of children has significantly influenced in the attitudes of schooling, peer relation and teacher-student relation which are sub-territory of children learning attitude in the statistics. Meanwhile, the result of this study also discovered that unexperienced children for an extracurricular education showed a positive and good learning attitude. So, the experiences for overheated extracurricular educations is unconditionally not good. Additionally this study discovered that parents' achievement pressure influences negative affect in learning attitudes of children but it rarely affect such attitude. Accordingly, this study shows that parents' achievement pressure has the potential to develop as a positive rearing attitude.

Key Words : Private Education Experience, Parent's Achievement Pressure, Learning Attitude

* teacher, Pul Lip Child Care Center

** Full-time Lecturer, Dept. of Social Welfare, Cheju Halla College